

'성인'으로 추앙된 프랑스의 '도둑' 작가

장 주네 생애 동성애 관점에서 재구성한 화이트의 「주네 전기」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우리에게 「도둑일기(The Thief's Journal)」로 잘 알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에 관해서는 베일에 싸여 있는 장 주네(Jean Genet)의 삶을 다룬 책 한권이 주목을 끌고 있다. 주네는 현대 프랑스 작가들 가운데 독창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소설가이자 희곡작가인데, 특히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 자전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는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에서 주네의 작품들을 저자의 동성애 편력의 현현으로 치부하고 그 작품들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을 내린 바 있다. 아직도 문학교실에는 남색이나 사도 매저키즘, 성도착, 게이와 호모들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인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 주네의 작품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종과 계급의 관계 그리고 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원초적 논의로 되돌아가 호모 섹스의 세계를 문학의 주제로서 도마 위에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 점에서 최근 간행된 에드먼드 화이트(Edmund White)의 「주네 전기」(GENET, A Biography, 728 pp. New York: Alfred A. Knopf, 1993)는 주네의 독특한 호

모 섹스적 경험속에 그의 인간적, 문학적 비전을 적절히 자리매김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지난 20여 년 동안의 비평과 세평이 그의 진면목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졌던가를 실측하게 만드는 기념비적 시금석이 되고 있다. 때때로 저자는 주네의 복잡다양한 작품들을 호모섹스라는 단순한 좌표축으로 재단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듯도 싶지만, 그러나 이 전기물은 주네 작품들을 꼼꼼할 정도로 꼼꼼하게 연구하여 충분히 이해한 바탕위에서 넘칠만큼 풍부한 예시를 통해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끝내 단순화의 유혹에 당당히 맞서 버티고 있다

주네는 1910년 생년으로서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 감화원에서 세월을 보냈다. 1910년 스물 두살때는 처녀의 사생아로 태어난 천덕꾸러기였던 그는 두살 남짓 되었을 때 어머니에 의해 버려져 프랑스 동부지역의 빈촌인 모방(Morvan)에서 양부모의 손으로 자랐다. 저자 화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주네는 이 양육과정에서 지나칠 정도의 사랑을, 특히 양어머니의 퍼붓는듯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던 棄兒 체험은 그로 하여금 신뢰를 쌓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각인시킨듯, 점차 그의 양부모의 사

랑과는 달리 한다는 것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동으로 성장해 갔다. 결국 마을 내에서의 딱지는 구제불능의 '호로자식'이었다.

물릴줄 모르는 독서광이었던 주네는 13살 먹은 해에 파리 근교의 공공복지관에서 조판기술을 배우기도 했으나 금방 때려치우고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집과 복지시설들을 전전하였다. 그동안 좀도둑질을 벌이다가 결국은 15살 때 메트레(Mettray)의 소년 감화원에 수감된다.

메트레 소년 감화원에서의 경험과 감금상태의 야만적 상황은 「장미의 기적(Miracle of the Rose)」속에서 작품화된다. 그러나 양부모 슬하의 외면적인 행복을 스스로 악마화시켰던 것과는 또다른 방식으로 메트레에서의 수감생활을 그는 이상화시켰다. 말하자면 메트레 소년 감화원은 엄격한 계급질서 아래 순전히 어린 남성들만으로 조직된 봉건적 사회를 꿈꾸는 첫번째 모델이었던 것이다. (이런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사회에 대한 경도와 열망은 니체의 계보와 연결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저자 화이트는 이를 파시즘이라는 정치적 형태로 적절히 관련지우고 있다)

주네의 작가적 이력의 출발도 바로 메트레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

서 그는 앞으로 내내 그의 글쓰기의 주제가 될 폭력적인 역할분담의 성교를 호모 섹스라는 개념속에 성숙시키고 있었으며, 또한 명예와 배반의 테마, 지배와 복종, 참됨과 거짓 등의 주제를 부화시키고 있었다.

1929년 주네는 육군에 입대하여 베이루트와 다마스쿠스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프랑스 식민주의였으며 이곳에서 그는 중근동에서 자행되는 억압이 바로 그가 모방과 메트레에서 경험하였던 억압의 확산된 형태임을 날렵하게 간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그렇게도 경멸해마지 않던 프랑스 사회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던 유일한 경험이기도 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에서 실로 가장 상징적인 삶이었던 군대 시절을 훗날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인 듯하다. 그는 여러 번 군대에 재입대했고 그것은 1936년에야 완전히 끝났다.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는 좀도둑질(손수건이나 책 따위들인데,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고도의 文士 자객이었다") 계속하면서 수차례 걸쳐 체포된다. 그러면서도 1940년에서 47년에 이르는 동안에 그의 대표적인 소설들이 대부분 만들어진다. 그 가운데 두 편 「꽃의

성모 마리아(Our Lady of the Flowers)」와 「장미의 기적」은 감방속에서 씌어진 것이다.

저자 화이트가 주네와 프루스트(주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작가다) 그리고 지드를 계급과 성의 관점에서 비교한 부분은 가히 압권이다. 그는 주네의 역마살이 중산층의 여행편력과는 달리 생존을 위한 방편이었던 까닭을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국지향적 탈출로 설명한다. 그는 또한 주네와 두 작가와의 차이점을 자신의 성욕과 그것의 반사회적 함의를 어느 한 도까지 수용했는가라는 정도의 차이로 이해한다. 주네는 호모섹스를 완벽한 악으로 관념하는 전통적인 상식에 추호도 아량을 요구하거나, 비난을 모면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내친 걸음,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모섹스와 함께 도둑질과 배신을 첨가하여 '도덕성'의 세 궁합을 맞추었던 것이다. 사악함은 아우스이더들의 도덕을 위한 주네의 암호명이 되었다.

40년대 초반 장 콕토가 주네의 책출판을 주선해주었으며 몇년 후에는 사르트르가 주네를 聖人으로 추앙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그의 도둑질은 끊임 없었고 따라서 프랑스에서 가장 악명높은 감옥들을 수차례

호산방

고서점 · 도서출판

호산방은 고서의 공정한 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화 작업에 의한 호산방도서목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판매도서목록

- 02432 海外展示古美術展覽會目錄: 1959. 5 / 20,000원
- 03164 精校醫學入門: 李延上海錦章圖書局 石印本 9册 / 300,000원
- 03220 西涯樂府: 李東陽 木板本 3册 / 600,000원
- 03823 映畫研究(創刊號): 映畫評論社(日) 1937. 8 / 150,000원
- 04506 暮譜: 崔南善 朝鮮光文會 1912. 8 / 100,000원
- 04690 고란초: 金燕星 文榮社 1948. 10 / 100,000원
- 04750 荒野의 叫喚: 金炳昊 1949. 3 / 100,000원
- 04881 秋江先生文集: 南孝溫 清道新案 辛酉 木板本 5册 / 1,000,000원
- 04894 世界體育史: 出口林次郎 文書堂 1927. 6 / 150,000원
- 05002 Les Misérables: Victor Hugo U.S.A. 1887 / 100,000원
- 05368 文章讀本: 李光洙 弘智出版社 1937. 7 (再版) / 50,000원
- 05627 黨憲: 自由黨 1951年代(?) / 50,000원
- 05858 鐵鷲(第8號): 鐵道警察本隊 1952. 6 / 50,000원
- 06052 火田調查報告書·火田整理二關スル參考書: 朝鮮總督府山林部 1928. 12. 2册合本 / 500,000원
- 06071 疑禮問解: 金長生(編) 1646. 木板本 4册 / 400,000원
- 06378 犬の知識: 中村勝一 浩文社(日) 1938. 5 / 100,000원
- 06380 新制音樂要義: 五十嵐篤三郎(外)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939. 3(再版) / 100,000원
- 06399 朝鮮高麗陶磁考: 中尾万三 學藝書院(日) 1935. 7 / 200,000원
- 06475 解放紀念詩集: 中央文化協會 平化堂印刷部 1945. 12 / 200,000원
- 06628 朝鮮人物號譜: 文化書館 1924. 10 2册 / 80,000원

- 06633 地方制度略解: 1920. 11 / 50,000원
- 06931 恨中錄: 李秉岐 白楊堂 1947. 6 / 30,000원
- 07617 卍이론詩集: 張致鄉(譯) 大志社 1952. 11 / 50,000원
- 07975 朝鮮工藝展覽圖錄: 田邊孝次 國民美術協會(日) 1934 / 300,000원
- 08080 陶器講座(第18卷): 雄山閣(日) 1937. 3 / 100,000원
- 08215 朝鮮女俗考: 李能和 翰林書林 1927. 6 / 300,000원
- 08224 漫畫天地(創刊號): 漫畫天地社 1956. 9 / 100,000원
- 08240 自由文學(創刊號): 韓國自由文學者協會 1956. 6 / 50,000원
- 08311 民約論: 大成出版社 1949. 1 / 20,000원
- 08322 新聞과 記者: 朴聖煥 希望社 1953. 4 / 50,000원
- 08964 農家要覽: 癸丑 筆寫本 農桑類, 五穀凶日(외) / 200,000원
- 09037 農事直說: 木板本 勸農文·衿陽雜錄合部 / 1,000,000원
- 09417 圖像獄中花: 李國唱 唱本 世昌書館 / 100,000원
- 09429 日鮮華英新字典: J.S. GALE 1917. / 300,000원
- 09762 國家學: 敦明義塾 1907. 등사본 / 500,000원
- 09787 黃土記: 金東里 人間社 1959. 10 / 50,000원
- 09875 耳談續纂: 丁若鎔 廣學書舖 1908. 8 / 300,000원
- 10009 註解千字文: 1804. 木板本 / 200,000원
- 10042 朝鮮의 民謠: 成慶麟(外) 國際音樂文化社 1949. 2 / 100,000원
- 10084 太極問辯: 玉山書院 木板本 壬寅 / 200,000원

호산방은 30년 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서울시 중로구 서린동 136 한일빌딩 이케이드 7호 전화 722-8029 팩스 722-6642

